

주민 공감 얻는 환경시설로 사회적 비용 최소화해야

광주·전남은 지금 '환경' 갈등 중

광주·전남이 쓰레기, 신재생에너지 등 이른바 환경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쓰레기 처리로 인한 대기오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따른 재해 위험,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와 이를 설치하려는 공공기관, 관련 기업과의 마찰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결과 발표, 충분한 공감대 조성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경우 시설 설치가 결정되더라도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사회적 갈등만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발생'과 '처리' 장소 달라 마찰 겪는 쓰레기 문제=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건설을 둘러싸고 전남 지역 곳곳에서 지역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특히 나주·별교·순천에서 연일 쓰레기 관련 시설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 395건...매년 2배 급증 전문적인 피해 조사·결과 발표로 불필요한 논쟁 없어야

(SRF·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끄럽다. 나주시민들의 집회는 발전소가 준공된 지난 2017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서 보성 벌교에서도 폐기물 매립장 건설 움직임에 반대하는 주민 300여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별교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 대책위'의 집회는 벌교 추동리 석산체석장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립하기 위해 한 민간업체가 지자체에 허가 절차를 문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시작하면서 발단이 됐다.

순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를 외치는 주민 100여명이 거리로 나섰다. '순천 월등면 소각장 반대위원회'는 순천 '클린업 환경센터' 후보지로 월등면이 선정되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반대위는 "월등면은 지형상 분지로, 소각시설이 들어선다면 소각 후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연기가 빠져나

가지 못한다"면서 "또 전남도가 선정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게 어불성설이다"고 집회의 이유를 설명했다.

◇'곳곳에 들어서는 태양광시설에 이제는 풍력발전소까지=광주·전남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해마다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 민원 접수가 총 395건에 달한다. 광주·전남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47건, 75건, 70건으로 해마다 2배 가량 급증했다. 해당 시설별로는 광주의 경우 태양광 시설에 관련된 민원(3건)만 제기됐지만, 전남에서는 태양광 306건 풍력 81건, 수력·바이오폐스 등 기타 5건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수 거문도 인근 해상풍



최근 광주·전남 곳곳이 환경시설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왼쪽)와 벌교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 시위.



력발전 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앞바다에 8MW급 발전기 36기를 설치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허가했다. 어민들은 소음과 진동,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삶의 터전이 황폐해질 것을 우려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해남 문내면 혈도 간척지 5.8㎢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하는 사업도 주

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은 안정성과 이미지가 가장 큰 반대의 원인으로 주민들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로만 몰면 안된다"면서 "입지 처리 타당성 확보 및 주민들의 권한 행사 증가 등 투명한 정보와 배출 기준 강화 등 갈등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더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주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김경숙 녹색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홍창 당진시장, 녹색위원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시장, AI 도시 선점 '광폭행보'

서울서 인공지능 보고대회 ... 국비 확보 총력전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인공지능(AI) 도시 선점을 위해 수도권 등에서 대외 활동을 강화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사업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전망하고 인재 양성, 기술 확보, 제도 마련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광주·MBN·광주과학기술원이 공동 주최했다.

보고대회에는 김태년·주호영·권은희·김영진·양향자·윤관석·김진표 국회의원, 박보경 청와대 경제보좌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진옥동 신한은행장, 관광공사 우 리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개원,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 지역 대학 관련 학과 개설 등의 사업을 소개했다.

이용섭 시장은 개회사에서 "광주는 수많은 변화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성과로 만들어 내며 인공지능 4대 강국을 뒷받침하겠다"며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인공지능은 21세기를 지배할 패러다임이다. 10년 안에 인공지능을 선점하는 국가가 2100년까지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 함께 전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융합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10만명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22년까지 인재 5000명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올해 3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10개 분야 15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 2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시 중구 더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주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광주형 AI-그린뉴딜, 정의로운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로 전환'을 주제로 발표를 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 또다시 국회를 찾아 국비확보 행보를 강화했다. 이 시장은 안일한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난 데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군·민간 통합 '무안공항 복합도시'로"

강기정, 광주·무안군·국방부 '빅딜' 강조... "명칭은 '김대중 국제공항'"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답보상태인 광주 군·민간 공항의 해법으로 '광주·전남 통합 신공항 건설'을 제시했다.

이 같은 새로운 제안에 전남도는 우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전 대상지를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통합 공항을 시작으로'를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무안공항의 국제선과 광주공항의 국내선 그리고 광주 군 공항을 한 곳으로 통합해 국제 관문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고 무안을 '공항 복합도시'로 조성해 서남권 공항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행 당사자 간 갈등으로 진척이 없는 군·민간 공항 이전에 대해 "광주시, 무안군, 국방부가 작은 양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는 빅딜(통합 공항 건설)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공항의 방향으로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국내선과 국제선 통합 ▲군 공항 규모를 현재 국방부 계획 대비 70% 축소된 현재 광주 군 공항 수준으로 유지 ▲국방부 계획보다 7배 넓은 완충지대를 조성해 소음 피해 최소화 ▲완충지역 1000만평 공항 복합도시 공동 개발을 제시했다.

공항복합도시에는 모두 3개 지구로 구성해 1 지구는 풍력기반 특화산단과 항공산업 특화단지, 물류기반 산업단지, 예코 관광단지를 조성



한다는 내용이다. 2 지구는 관광레저지구, 3 지구는 아시아 투자지구를 조성해 완충지대를 최대한 넓혀 소음 지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무안공항이 있는 무안군은 군·민간 공항의 통합이

전에 합의하고 '공항 복합도시' 건설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광주시는 완충 부지(약 750만평)를 확보하고 전남도는 공항(약 250만평)과 완충 지역(약 1000만평)에 공항 도시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민간공항 이전으로 완충 지역을 무안군에 확보해 주고 현재 공항 부지에는 미래형 신도시를 개발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계획 대비 군 공항 규모가 줄어들지만, 서남권 전략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전 수석은 통합 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국제공항'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강 전 수석의 제안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도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강 전 수석의 제안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이전 대상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2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